

‘소나무’...늘 푸르른 기상으로 우리네 기억을 품다

김선중 작가 초대전 ‘솔향전’, 17일까지 강진아트홀

한국적 정체성, 실험성 담은 20여 년 작업 ‘한자리’



고스란히 스며 있다.

서양화가 김선중(사진)의 초대전 ‘솔향전’이 오는 17일까지 강진아트홀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선중 작가가 20여 년간 탐구해 온 소나무의 한국적 정체성과 회화적 실험의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다.

오랜 시간 작업의 중심에 있었던 소나

나무의 구불구불한 곡선과 거친 나무껍질은 마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생하다. 층층이 쌓아올린 물감에는 오랜 시간 소나무를 바라본 작가의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서양화가 김선중(사진)의 초대전 ‘솔향전’이 오는 17일까지 강진아트홀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선중 작가가 20여 년간 탐구해 온 소나무의 한국적 정체성과 회화적 실험의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다.

오랜 시간 작업의 중심에 있었던 소나

나무를 통해 사라져가는 풍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인간 내면의 정서를 복원하는 회화적 여정을 풀어낸다.

작가는 회화를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닌 감정과 기억을 담은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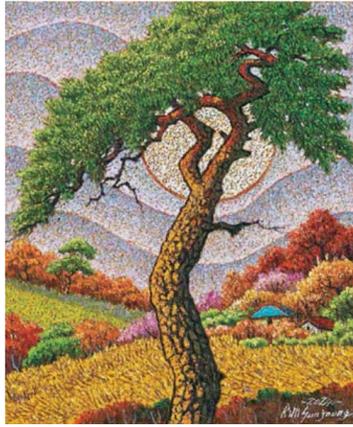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들었던 화실에서 시작된 그림과의 인연은 이후 서양화 전공을 거쳐 마티에르 기법이라는 독자적인 회화 언어로 자리 잡았다.

물감을 반복적으로 쌓아올려 깊은 질감을 만드는 이 기법은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층위를 화면 위에 고스란히 새겨 넣는다.

그는 항상 장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며 색을 겹쳐 쌓는다.

이를 통해 평면임에도 부조에 가까운 입체감과 정서적 농도를 동시에 구현해낸다.

작가의 화폭에는 배꽃, 복숭아꽃, 시골집, 개



‘밤에 나온 온달’

나리처럼 한때는 일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희미해진 풍경들이 담겨 있다. 탈춤, 승무, 살풀이, 사물놀이 같은 전통 춤사위도 화면 속에 등장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잊히는 민족의 정서와 감각을 소환하며, 사라져가는



‘봄의 길목에서’

것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담담히 풀어낸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소나무다.

작가는 “도시화 이전, 우리 민족은 평생을 소나무와 함께 살아갔다.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소나무는 생애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존재였다”며 “이토록 우리 삶에 밀착된 재료이자 정서적 상징인 소나무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의 뿌리를 탐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금강송(金剛松)을 중심으로 한 풍경을 다루고 있다. 운해 속 산하를 배경으



‘뒷산에 오르면’

로한 200호 크기의 대작 ‘우리 땅’을 2년 넘게 작업 중이며, 이는 한국적 자연의 숭고함과 정신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에서도 이러한 대형 작업과 함께 다양한 소나무 연작이 소개된다.

작가는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가 화두지만, 회화의 붓 터치에는 작가의 시간과 내면이 새겨진다”며 “소나무 숲길을 걷듯 작품을 감상하며 바쁜 삶 속 작은 위로와 휴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단조 선율 따라 흐르는 멘델스존·브람스 감성

광주시향 챔버 시리즈 V ‘Soul in Minor’...오는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향교향악단이 단조(minor key)의 진한 울림을 주제로 한 챔버 시리즈 V ‘Soul in Minor’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광주시향 단원인 바이올린 강다영, 비올라 조수영, 첼로 이후성, 피아노 김동준이 함께 꾸민다. 단조가 지닌 진솔한 감정과 깊이를 실내악 앙상블로 풀어내며, 각 악기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표현과 조화가 무대를 채운다.

첫 곡으로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op.49’가 연주된다. 낭만주의적 서정성과 고전주의 형식미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피아노와 현악기의 섬세한 대화 속에서 감정의 흐름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선율



광주시향 챔버 시리즈 V 출연진

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이어지는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1번 G단조 op.25’는 네 악기가 긴장과 해방을 오가며 드라마틱한 전개를 이끈다. 특히 마지막 악장 ‘집시 룬도’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집시풍 선율이 극적인 피날레를 장식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이번 무대는 단조가 담아내는 깊은 감성과 연주자들의 섬세한 해석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8월의 끝자락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 내면의 울림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광주시향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전석 1만원이다.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 가능.

/최명진 기자

지금, 상상한 것들이 이뤄지는 세상을 꿈꾸라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 창작뮤지컬 ‘페이지나’...오는 22-23일 두차례 공연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 창작뮤지컬 ‘페이지나’ 공연이 오는 22일과 23일 두차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 공연이다.

‘페이지나’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헤매던 소설 작가 비비안이 우연히 엄마가 쓰던 소설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비비안은 등장인물 ‘올리비아’가 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역역이 된 비비안은 주인공이자 올리비아의 친구인 ‘윌리엄’을 방해하려 애쓰지만, 어느새 소설 속 인물들을 응원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갈등에 빠진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이 멈추고, 비비안은 얼마의 소설이 거기까지 쓰여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공연집단 바람길이는 이번 작품은 ‘메아리’, ‘대한의 이름으로’ 등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 창작뮤지컬 ‘페이지나’ 공연 모습

에서 호흡을 맞춘 한주는 작가, 최현규 작사가, 서진영 작곡가가 만든 세 번째 창작뮤지컬이다.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창작지원작에 선정돼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초연한 바 있다.

‘페이지나’ 공연은 22일 오후 7시30분, 23일 오후 3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105분간 진행된다. 7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원이다. 티켓링크,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2025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광역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모집인원 수시 모집 (예산범위내)	모집기간 2025. 7. 21. ~ 11. 30.	돌봄수당 월20만원 (1일 4시간 이상 돌봄 원칙)
신청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두자녀 이상인 세대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실제 광주 거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기간은 가능 서비스 이용기간: 최대 3년 ※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산정함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전화 062-363-9401~2 팩스 062-363-9403 이메일 cow9401@hanmail.net 	문의처 (사)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062-363-9401~2 홈페이지 http://www.gcow.or.kr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BKHCj?from=qr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서, 서약서(광주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gcow.or.kr)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